

글로벌 펀드플로우 주간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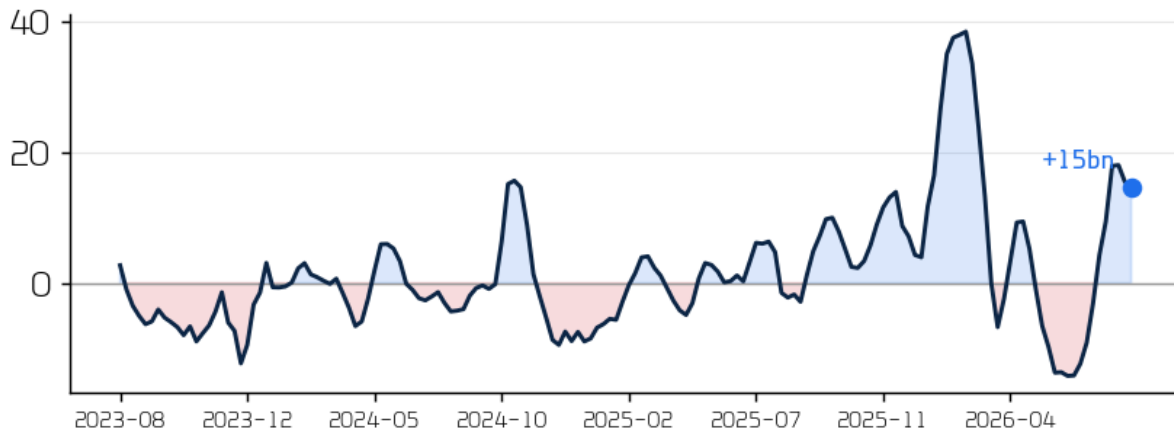
2026.08.31 · 데이터 마감 2026.08.26(수) 주간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이번 한 주 전체 펀드에서 58 억달러가 빠졌지만, 최근 4 주로는 2,189 억달러가 순유입돼 큰 흐름은 유지됐다. 위험 선호는 과열도 냉각도 아닌 중립 국면(최근 5 년과 비교해 상위 42% 수준)이다.

전체 순유입(4 주) +218.9 bn · 위험 선호는 최근 5 년 중 상위 42% 수준 · 주식 4 주 유입은 2000 년 이후 상위 9% 수준

이번 주 주인공: 신흥 주식 — 4 주 누적 순유입 (USD bn) ·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10%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ment

- 전체 펀드에서 이번 한 주 58 억달러가 빠졌지만, 최근 4 주로는 2,189 억달러가 들어왔다
- 주식형 펀드에 최근 4 주간 606 억달러 유입 — 금액 기준 2000 년 이후 상위 9% 수준
- 현금성 자산에서 한 주 만에 201 억달러가 빠지는 동안 채권으로 102 억달러가 들어왔다
- 미국 펀드는 4 주로는 82 억달러 순유입이나, 이번 한 주에만 197 억달러가 빠졌다
- 부동산 펀드는 돈이 들어온 곳이 35%뿐 — 최근 3 년 중 하위 1%의 유출 쏠림

이번 주 전체 펀드시장은 58 억달러 순유출로 잠시 숨을 골랐다. 최근 4 주로 시야를 넓히면 2,189 억달러가 들어와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한 주 사이 현금성 자산에서 201 억달러가 빠지고 채권으로 102 억달러가 들어온 조합이 이번 주의 성격을 보여준다 — 현금을 털어 옮기는 재배치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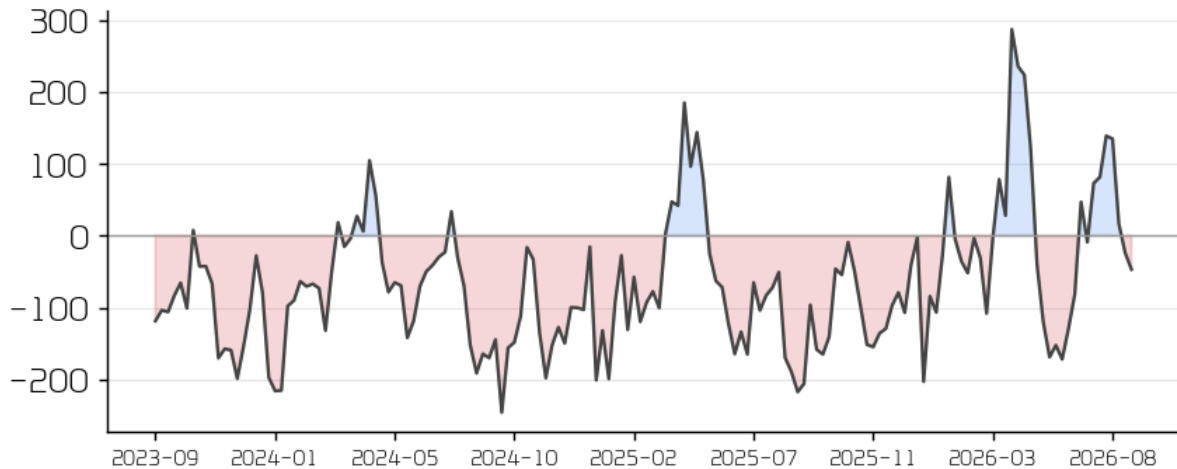
위험 선호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주식형 펀드의 4 주 유입 금액은 2000 년 이후 모든 주와 비교해 상위 9%에 들 만큼 크지만, 같은 4 주간 위험자산에 들어온 돈은 안전자산보다 467 억달러 적었다. 미국과 글로벌 주식이 끌렸고, 자산 규모를 감안한 유입 강도는 신흥국 주식과 원자재·귀금속 쪽이 앞선다.



위험선호 — 현재 「중립」 국면

● 중립 (Neutral) 위험자산-안전자산 4 주 -46.7 bn · 위험선호 강도는 최근 5 년 중 상위 42%

위험선호 지표 (위험자산 vs 안전자산, 4 주누적 USD bn)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식: 최근 4 주간 606 억달러가 들어왔다. 굴리는 자산 대비로는 0.22%로 평범한 수준이지만(최근 5 년 중 상위 23%), 돈이 들어온 펀드가 49%로 최근 3 년과 비교하면 상위 14%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만 보면 2000 년 이후 상위 9%에 드는 강한 유입이다.

채권: 최근 4 주간 554 억달러로 금액은 주식과 비슷하다. 다만 돈이 들어온 펀드는 46.8%로 최근 3 년 중 하위 19% — 자금이 일부 유형에 몰리고 나머지 펀드에서는 오히려 빠지는 쏠림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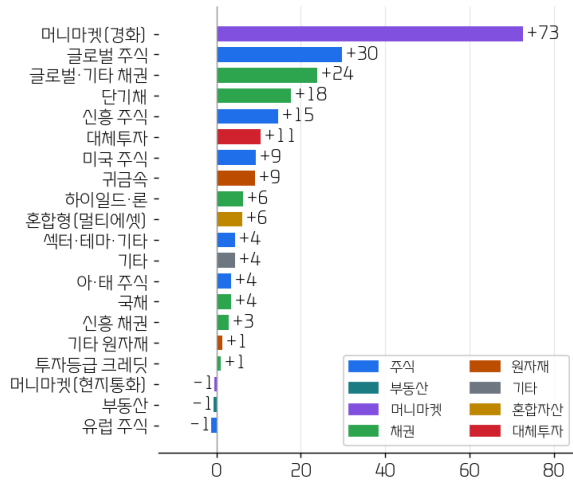
현금성 자산: 4 주 누적으로는 721 억달러 순유입이지만 이번 한 주에만 201 억달러가 빠졌다. 돈이 들어온 펀드가 45%로 최근 3 년 중 하위 6%에 그쳐, 소수 대형 펀드가 전체 수치를 떠받치는 모양새다.

원자재: 4 주 105 억달러로 금액은 작지만 자산 대비 1.79%로 유입 강도가 높고(최근 5 년 중 상위 13%), 돈이 들어온 펀드도 59.8%로 최근 3 년 중 상위 6%다. 덩치는 작아도 강도와 폭이 함께 강하다.

부동산: 4 주 8 억달러 순유출로 금액 자체는 작다. 그러나 돈이 들어온 펀드가 35%뿐이어서 최근 3 년 중 하위 1% — 거의 모든 부동산 펀드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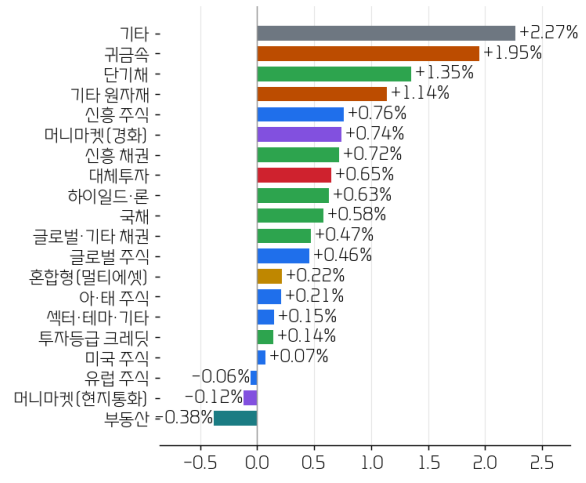
권역·테마 — 규모(절대금액) vs 강도(자산대비)

권역·테마 그룹 4 주 누적 순유입 (USD bn)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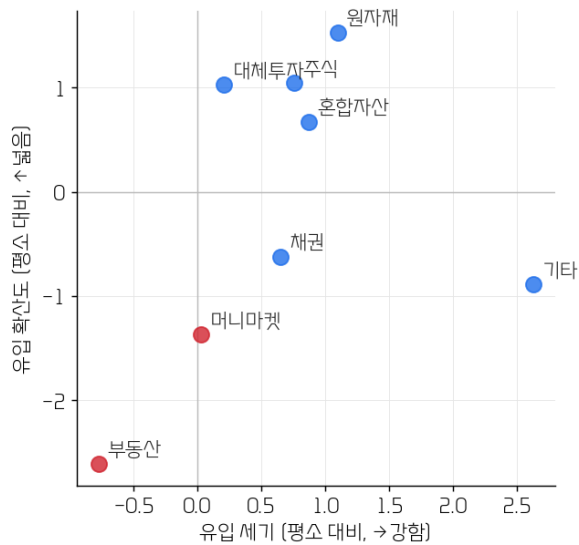
권역·테마 그룹 4 주 유입강도 (순유입 ÷ 자산, %)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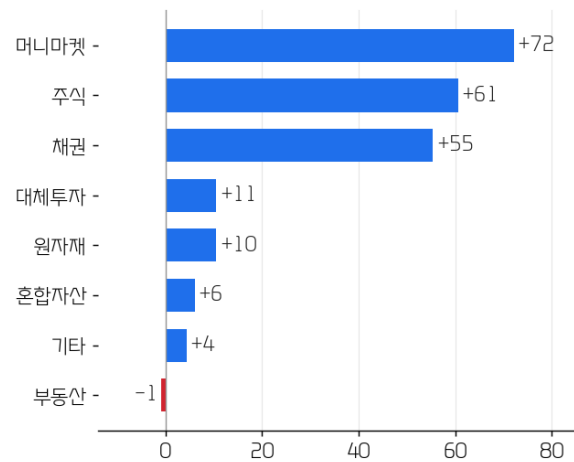
매크로 자산군 — 강도·참여폭

유입 세기 × 확산도 신호 사분면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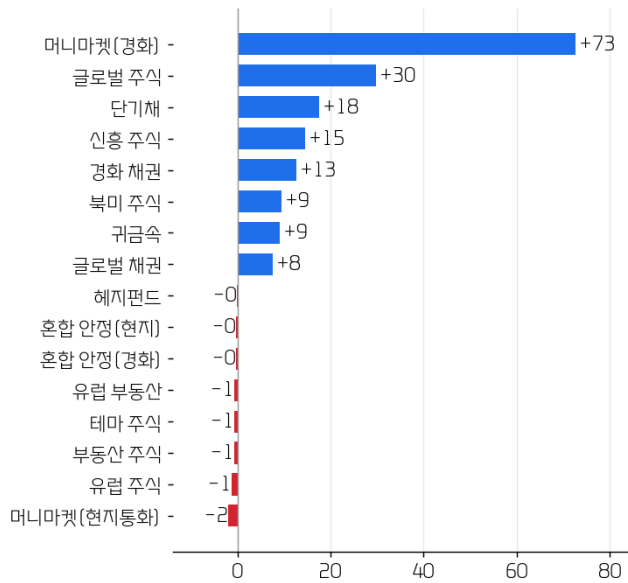
매크로 자산군 4 주 누적 순유입 (USD bn)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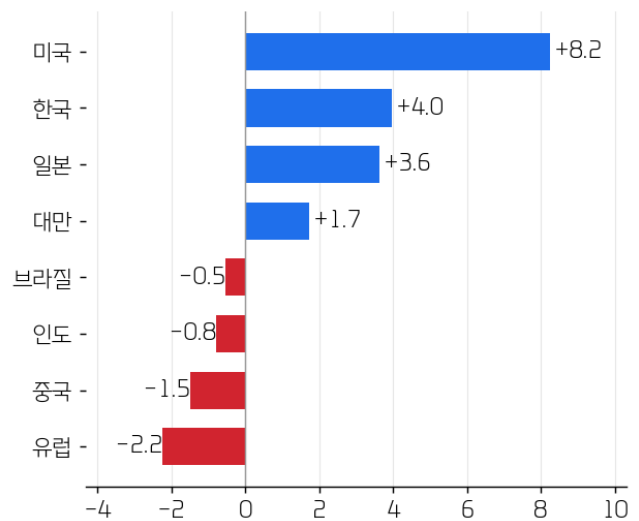
섹터·지역 로테이션

섹터·지역 로테이션 — 4 주 순유입 상·하위 (USD bn)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식 국가별 4 주 순유입 (USD bn, 참고·비합산)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로는 신흥국 주식(4 주 146 억달러, 자산 대비 0.76%로 최근 5 년 중 상위 10%)이 미국 주식(4 주 94 억달러, 자산 대비 0.07%)보다 유입 강도에서 뚜렷이 앞선다. 유럽 주식은 4 주 12 억달러 순유출로 방향이 반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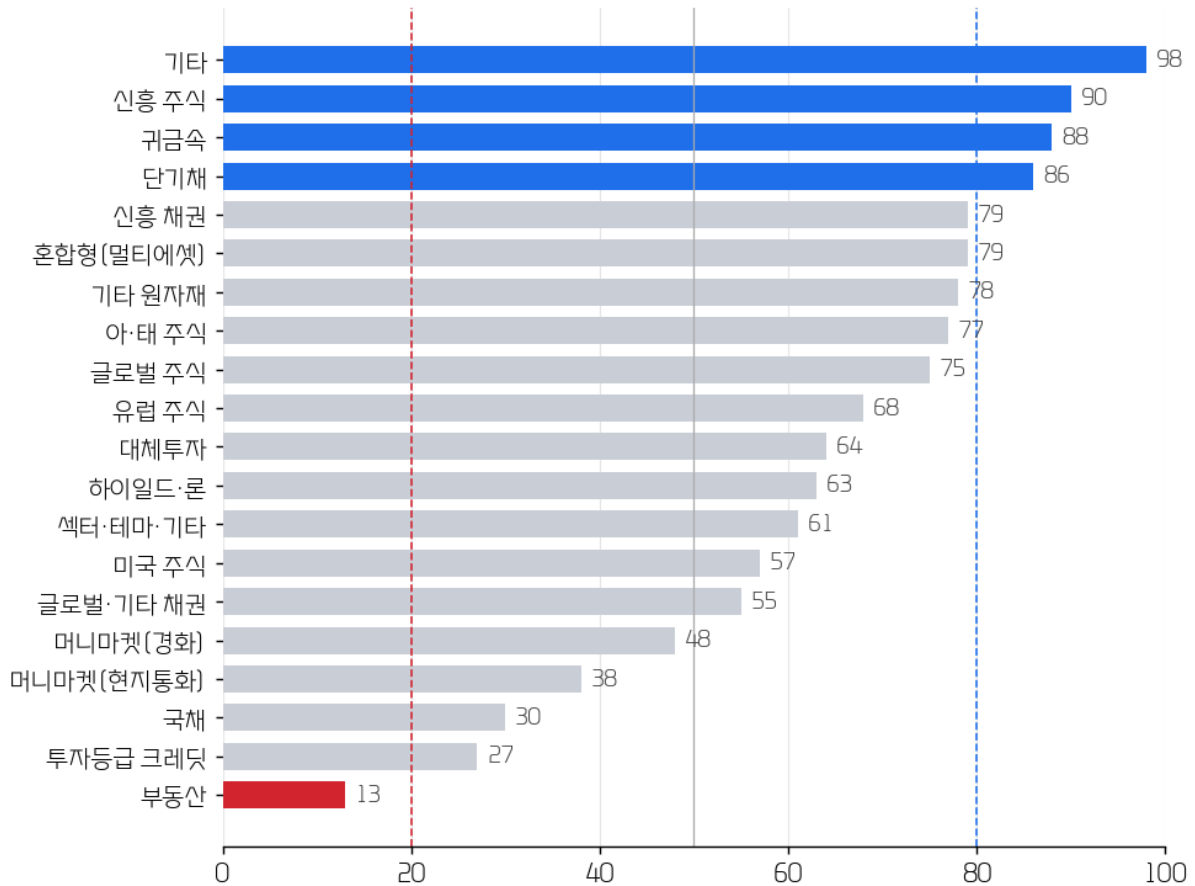
채권 안에서 금액을 이끈 것은 글로벌·기타 채권(4 주 239 억달러)이지만, 유입 강도가 가장 강한 곳은 단기채다(4 주 176 억달러, 자산 대비 1.35%로 최근 5 년 중 상위 14%). 투자등급 회사채는 4 주 11 억달러, 자산 대비 0.14%로 존재감이 약했다.

원자재 유입은 귀금속이 대부분을 차지했다(4 주 92 억달러, 자산 대비 1.95%, 최근 5 년 중 상위 12%).

국가별로는 일본(4 주 36 억달러, 한 주 19 억달러)과 대만(4 주 17 억달러)이 유입을 이어갔고, 중국(4 주 -15 억달러)·인도(4 주 -8 억달러)·유럽(4 주 -22 억달러)은 유출이 이어졌다. 미국은 4 주로는 82 억달러 순유입이지만 이번 한 주에만 197 억달러가 빠져 주간 방향이 크게 흔들렸다.

신호 · 역사적 극단

유입 세기의 5년 내 위치 (0~100) — 80 위는 과열권, 20 아래는 침체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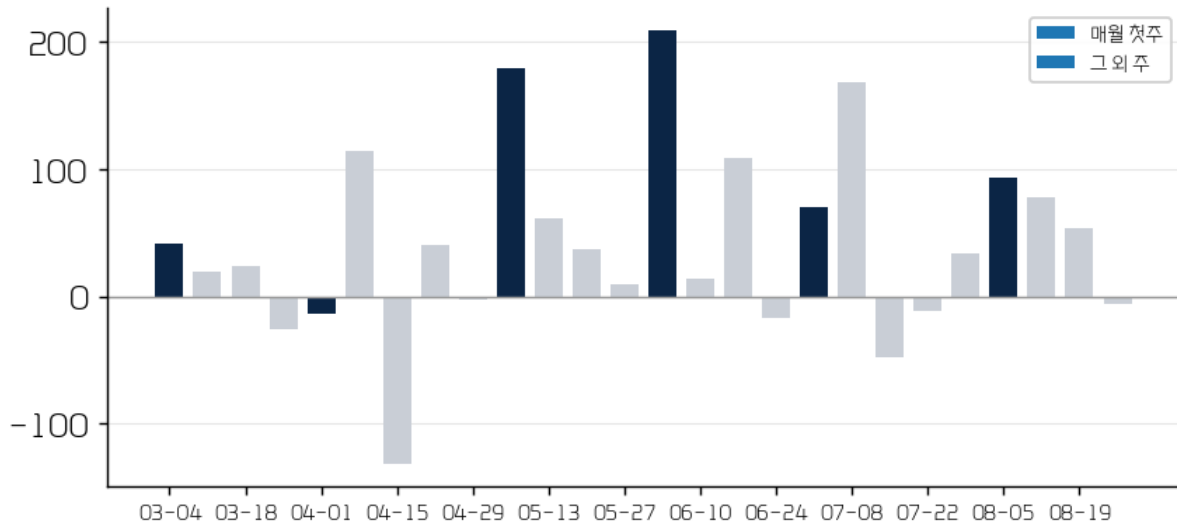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식형 펀드의 4주 유입 금액이 2000년 이후 상위 9%에 들고,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도 최근 3년 중 상위 14%다. 금액과 폭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만큼 추세가 아직 약해졌다고 보기는 이르다. 원자재와 귀금속에서 자산 대비 유입 강도가 최근 5년 중 상위 12~13%에 드는 것도 같은 방향의 신호다.

반대편에는 부동산이 있다. 돈이 들어온 펀드가 최근 3년 중 하위 1%로, 유출이 사실상 전 펀드로 퍼졌다. 이 정도 쏠림은 역발상 관점에서 눈여겨볼 지점이지만, 이번 데이터만으로 반등 시점을 가늠할 근거는 없다. 현금성 자산도 4주로는 순유입이나 돈이 들어온 펀드는 최근 3년 중 하위 6%로, 이탈이 넓게 진행 중이다.

유의점 · 해석 한계

주간 총 순유입 (USD bn) — 진한 막대 = 매월 첫 주(월간 보고 펀드 반영)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월간으로만 실적을 보고하는 펀드가 많아 월초 주간에 숫자가 몰려 크게 튜다. 미국 펀드의 한 주 197 억달러 유출에도 이런 보고 시점 효과가 섞였을 수 있어, 한 주 치 숫자만 보고 방향 전환을 단정해선 안 된다.

이번 주 데이터에서는 금액이 큰 자산군(현금성 자산·채권)일수록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은 낮았다. 전체 수치를 소수 대형 펀드가 좌우한다는 뜻이므로 시장 전반의 심리로 읽기 어렵다. 반대로 원자재·대체투자처럼 금액은 작아도 돈이 들어온 펀드가 넓은 경우는 참여의 폭이 실제로 두껍다.

자산군별 상세

앞의 큰 그림을 자산군마다 한 단계(권역·스타일·듀레이션·통화) 더 내려본다. 주식·대체투자·채권·머니마켓은 세부 종목까지, 나머지는 중분류까지. 규모가 미미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꼬리는 제외했다. 절대금액(bn)은 굴리는 자산이 큰 시장(미국 등)이 늘 상위에 오므로, 강도(자산대비%)를 함께 봐야 규모 효과를 걷어내고 실제로 세계 들어온 곳이 보인다.

주식 4 주 +60.6 bn

중분류	1 주(bn)	4 주(bn)	비중	강도(자산대비%)
글로벌 주식	+7.4	+29.8	49%	+0.5%
신흥 주식	+0.7	+14.6	24%	+0.8%
북미 주식	-18.6	+9.4	16%	+0.1%
섹터 주식	+3.1	+5.3	9%	+0.2%
아·태 주식	+2.2	+3.5	6%	+0.2%
기타 주식	+0.2	+0.6	1%	+1.1%
테마 주식	-0.4	-0.7	-1%	-0.2%
부동산 주식	-0.2	-0.8	-1%	-0.3%
유럽 주식	-0.7	-1.2	-2%	-0.1%
세부 종목	소속	1 주(bn)	4 주(bn)	강도(자산대비%)
글로벌	글로벌 주식	+4.6	+19.1	+0.5%
신흥 전반	신흥 주식	+2.0	+11.1	+0.8%
미국(광의·대형)	북미 주식	-19.6	+8.3	+0.1%
글로벌(미국 제외)	글로벌 주식	+0.7	+6.1	+0.3%
IT 섹터	섹터 주식	+3.2	+4.5	+0.4%
한국	신흥 주식	-0.6	+4.0	+2.5%
금융 섹터	섹터 주식	-0.9	-3.5	-2.0%
미국 중소형	북미 주식	-0.5	-3.1	-0.2%
UK	유럽 주식	-0.1	-2.3	-0.9%
유럽(영국 제외)	유럽 주식	-0.1	-1.6	-1.3%
천연자원 테마	테마 주식	-0.7	-1.3	-1.2%
Turkey	신흥 주식	-0.2	-0.9	-9.8%

대체투자 4 주 +10.5 bn

중분류	1 주(bn)	4 주(bn)	비중	강도(자산대비%)
리퀴드 대체	+1.9	+5.3	50%	+0.8%
대체 채권	+0.7	+2.6	25%	+0.7%
대체 주식	+2.4	+2.5	24%	+0.6%
절대수익	-0.1	+0.3	3%	+0.3%
헤지펀드	-0.4	-0.2	-2%	-0.8%
세부 종목	소속	1 주(bn)	4 주(bn)	강도(자산대비%)
상대가치	리퀴드 대체	+1.9	+3.2	+1.0%
Credit Focus	대체 채권	+0.4	+2.1	+1.0%
롱숏 주식(글로벌)	대체 주식	+0.5	+1.0	+2.5%
주식 마켓뉴트럴	대체 주식	+0.3	+1.0	+2.2%

중분류	1 주(bn)	4 주(bn)	비중	강도(자산대비%)
관리형 선물(CTA)	리퀴드 대체	+0.1	+0.8	+1.9%
롱숏 주식(미국)	대체 주식	+0.1	+0.8	+1.3%
Bond EUR	대체 채권	+0.6	+0.5	+0.7%
멀티전략	리퀴드 대체	+0.1	+0.6	+0.5%
전용 숏(하락 베팅)	리퀴드 대체	-0.2	+0.7	+4.3%

채권 4 주 +55.4 bn

중분류	1 주(bn)	4 주(bn)	비중	강도(자산대비%)
단기채	+6.3	+17.6	32%	+1.4%
경화 채권	+2.9	+12.7	23%	+0.4%
글로벌 채권	+0.9	+7.5	14%	+0.7%
기타 채권	+0.9	+3.8	7%	+0.8%
국채	+0.3	+3.5	6%	+0.6%
하이일드	-1.7	+3.4	6%	+0.4%
신흥 채권	+0.8	+3.0	5%	+0.7%
뱅크론	+0.3	+2.9	5%	+1.3%
회사채	-0.4	+1.1	2%	+0.1%
현지통화 채권	-0.0	-0.1	0%	-0.0%

세부 종목	소속	1 주(bn)	4 주(bn)	강도(자산대비%)
USD Government Short Term	단기채	+4.1	+8.9	+2.5%
미국채 단기	단기채	+1.1	+4.5	+0.9%
미국채 중기	경화 채권	-0.3	+3.4	+0.3%
글로벌 채권(USD)	글로벌 채권	+0.6	+3.0	+0.6%
Loan Participation Funds	뱅크론	+0.3	+2.9	+1.3%
Global Short Term	단기채	+0.3	+2.1	+1.0%
원화 채권	현지통화 채권	+0.0	-0.8	-2.2%
Global High Yield USD	하이일드	-0.7	-0.6	-0.5%
Global AUD	글로벌 채권	+0.0	+0.5	+3.2%
GBP Inflation Linked	경화 채권	+0.1	+0.5	+1.9%
미 회사채	회사채	-0.5	+0.6	+0.2%
USD Municipal Short Term	단기채	+0.3	+0.6	+1.2%

머니마켓 4 주 +72.1 bn

중분류	1 주(bn)	4 주(bn)	비중	강도(자산대비%)
머니마켓(경화)	-12.0	+72.7	101%	+0.7%
머니마켓(기타)	+0.4	+1.3	2%	+2.0%
머니마켓(현지통화)	-8.5	-1.9	-3%	-0.4%
세부 종목	소속	1 주(bn)	4 주(bn)	강도(자산대비%)
미 달러 MMF	머니마켓(경화)	-3.7	+77.5	+1.0%
TRY	머니마켓(현지통화)	+1.6	+1.9	+3.5%

중분류	1 주(bn)	4 주(bn)	비중	강도(자산대비%)
COP	머니마켓(현지통화)	+0.7	+1.6	+4.0%
글로벌 MMF	머니마켓(기타)	+0.4	+1.3	+1.9%
원화 MMF	머니마켓(현지통화)	-2.4	+1.2	+0.8%
ZAR	머니마켓(현지통화)	-0.4	+0.8	+2.9%
칠레페소 MMF	머니마켓(현지통화)	-8.0	-7.3	-19.2%
파운드 MMF	머니마켓(경화)	-8.3	-3.3	-0.8%
유로 MMF	머니마켓(경화)	-0.3	-2.3	-0.2%

혼합자산 4 주 +6.1 bn

중분류	1 주(bn)	4 주(bn)	비중	강도(자산대비%)
혼합 유연(경화)	+0.5	+2.8	47%	+0.4%
혼합 중립(경화)	-0.5	+2.1	34%	+0.3%
혼합 중립(현지)	+0.3	+0.6	11%	+0.9%
타깃 만기형	+0.2	+0.6	9%	+0.4%
혼합 적극(경화)	+0.1	+0.2	4%	+0.0%
혼합 기타	+0.1	+0.2	3%	+0.1%
혼합 유연(현지)	+0.0	+0.1	2%	+0.4%
혼합 적극(현지)	+0.0	-0.0	0%	-0.0%
혼합 안정(현지)	-0.1	-0.3	-4%	-0.2%
혼합 안정(경화)	-0.2	-0.3	-5%	-0.1%

원자재 4 주 +10.5 bn

중분류	1 주(bn)	4 주(bn)	비중	강도(자산대비%)
귀금속	+4.2	+9.2	87%	+1.9%
복합 원자재	+0.3	+1.3	12%	+1.4%
기타 원자재	+0.0	+0.2	2%	+3.9%
산업금속	-0.0	+0.0	0%	+0.1%
농산물	+0.0	-0.0	0%	-1.4%
에너지	-0.3	-0.2	-2%	-1.4%

기타 4 주 +4.4 bn

중분류	1 주(bn)	4 주(bn)	비중	강도(자산대비%)
기타	+1.5	+4.4	10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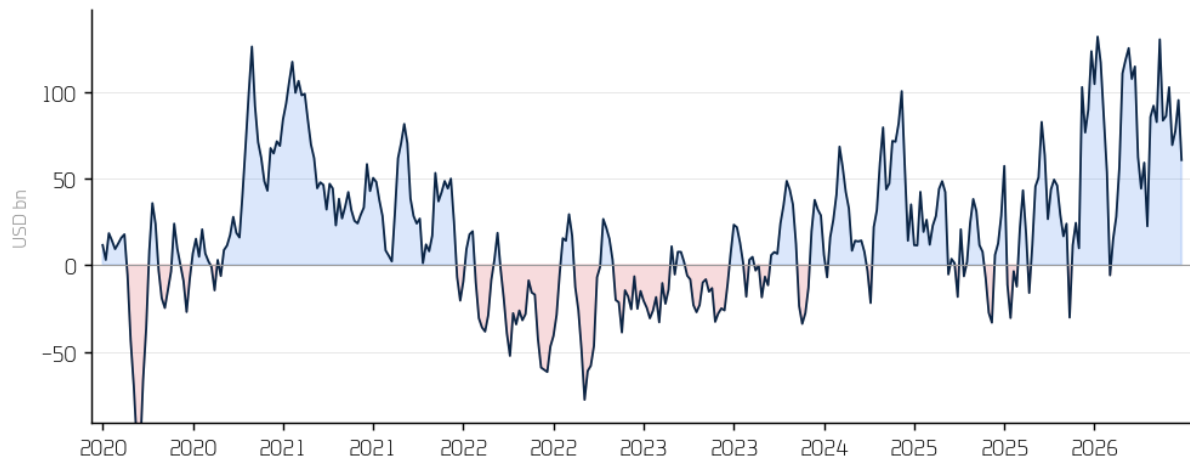
강도(자산대비%) = 4 주 순유입 ÷ 그 항목이 굴리는 자산. 절대금액이 커도 강도가 낮으면 '덩치라서 큰 것', 작아도 강도가 높으면 '세게 들어온 것'(자산 \$10 억 미만은 노이즈라 「—」). 비중 = 그 중분류가 자산군 순유입에서 차지하는 몫(순액 작은 자산군은 왜곡되어 「—」). 세부 품목은 4 주 순유입 규모가 큰 상·하위만 주렸다.

부록 — 권역·테마 그룹 (4 주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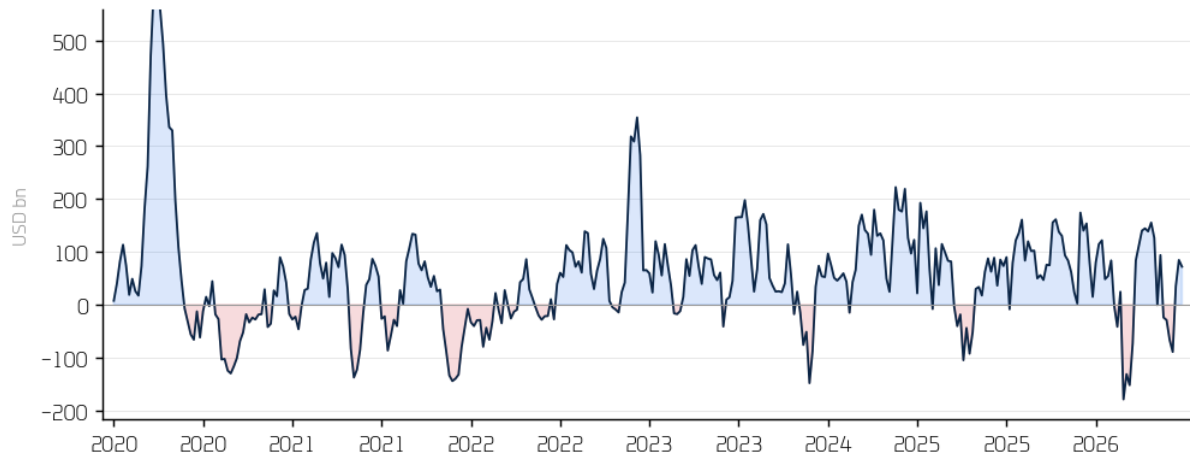
그룹	자산군	4 주 금액(bn)	자산대비(%)	5 년 내 위치
머니마켓(경화)	머니마켓	+72.7	+0.74	하위 48%
글로벌 주식	주식	+29.8	+0.46	상위 25%
글로벌·기타 채권	채권	+23.9	+0.47	상위 45%
단기채	채권	+17.6	+1.35	상위 14%
신흥 주식	주식	+14.6	+0.76	상위 10%
대체투자	대체투자	+10.5	+0.65	상위 36%
미국 주식	주식	+9.4	+0.07	상위 43%
귀금속	원자재	+9.2	+1.95	상위 12%
하이일드·론	채권	+6.3	+0.63	상위 37%
혼합형(멀티에셋)	혼합자산	+6.1	+0.22	상위 21%
섹터·테마·기타	주식	+4.4	+0.15	상위 39%
기타	기타	+4.4	+2.27	상위 2%
아·태 주식	주식	+3.5	+0.21	상위 23%
국채	채권	+3.5	+0.58	하위 30%
신흥 채권	채권	+3.0	+0.72	상위 21%
기타 원자재	원자재	+1.3	+1.14	상위 22%
투자등급 크레딧	채권	+1.1	+0.14	하위 27%
머니마켓(현지통화)	머니마켓	-0.6	-0.12	하위 38%
부동산	부동산	-0.8	-0.38	하위 13%
유럽 주식	주식	-1.2	-0.06	상위 32%

부록 — 6 대 자산군 자금흐름 추이 (4 주누적, 2020~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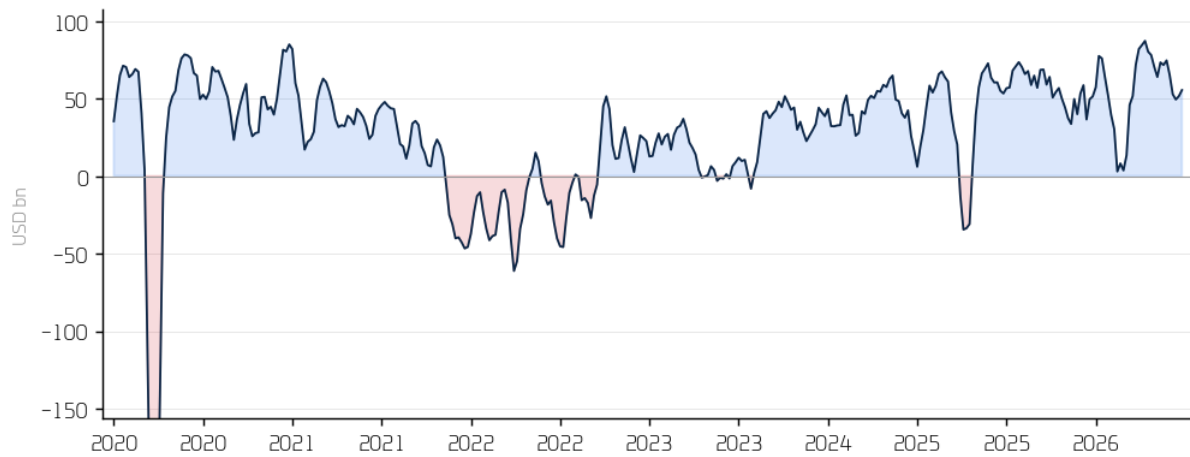
주식 — 4 주누적 순유입 (USD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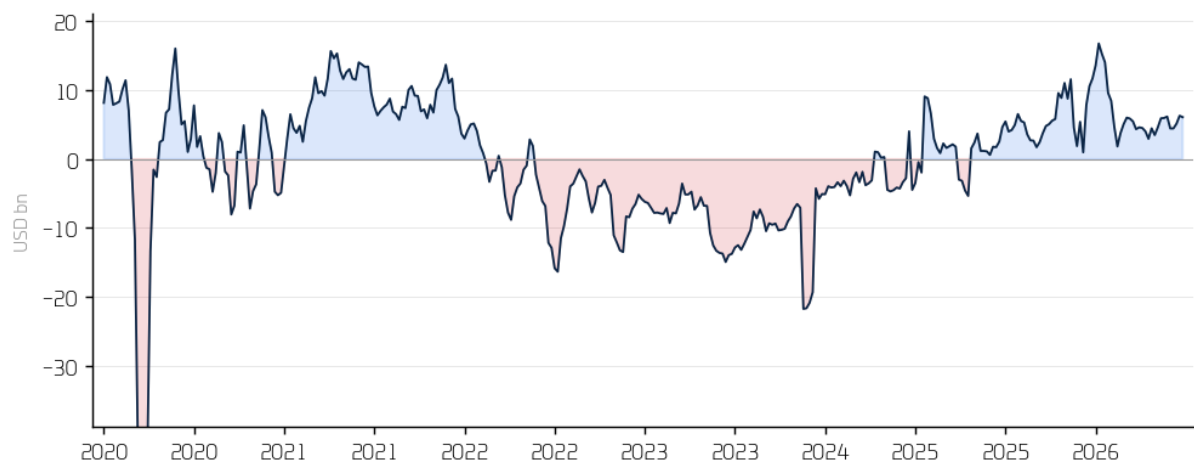
머니마켓 — 4 주누적 순유입 (USD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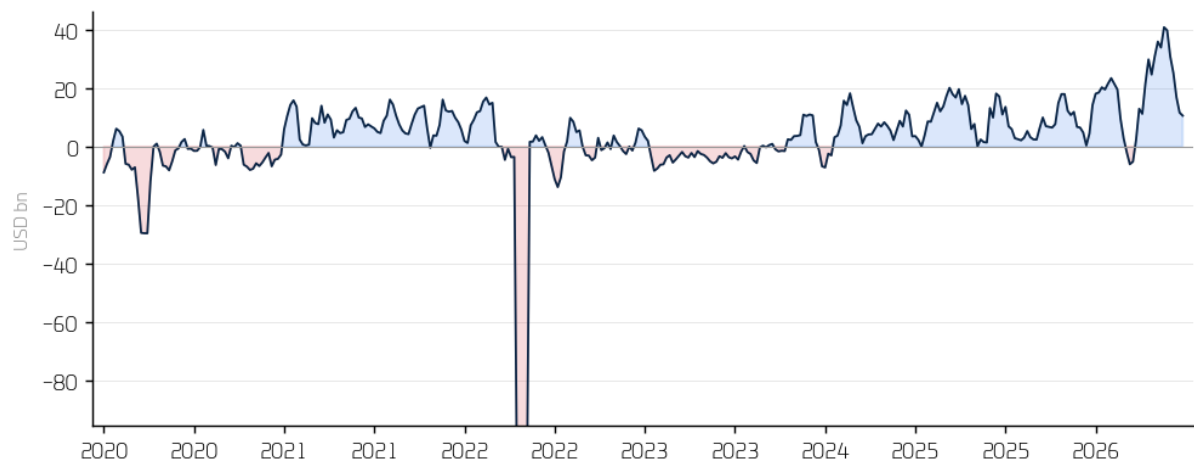
채권 — 4 주누적 순유입 (USD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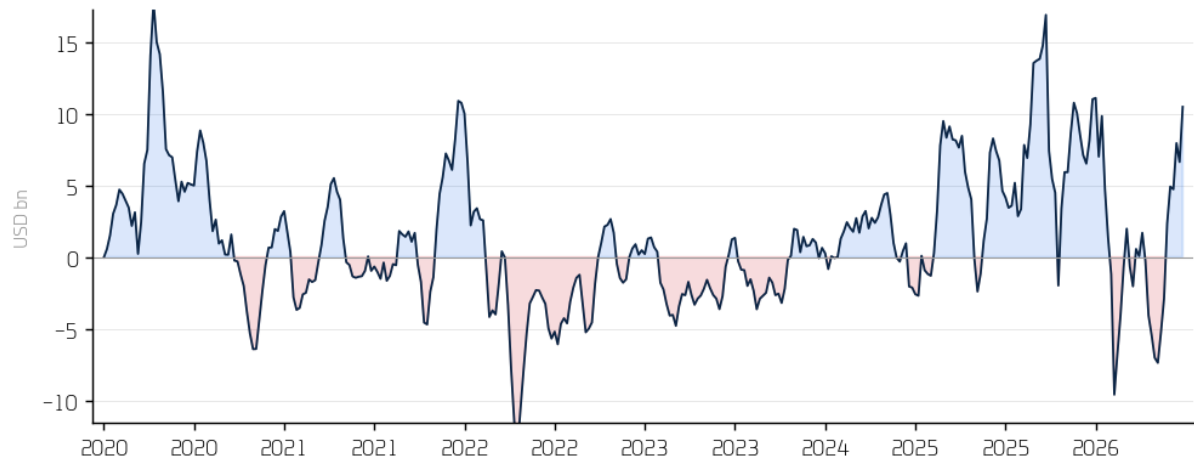
혼합자산 — 4 주누적 순유입 (USD bn)



대체투자 — 4 주누적 순유입 (USD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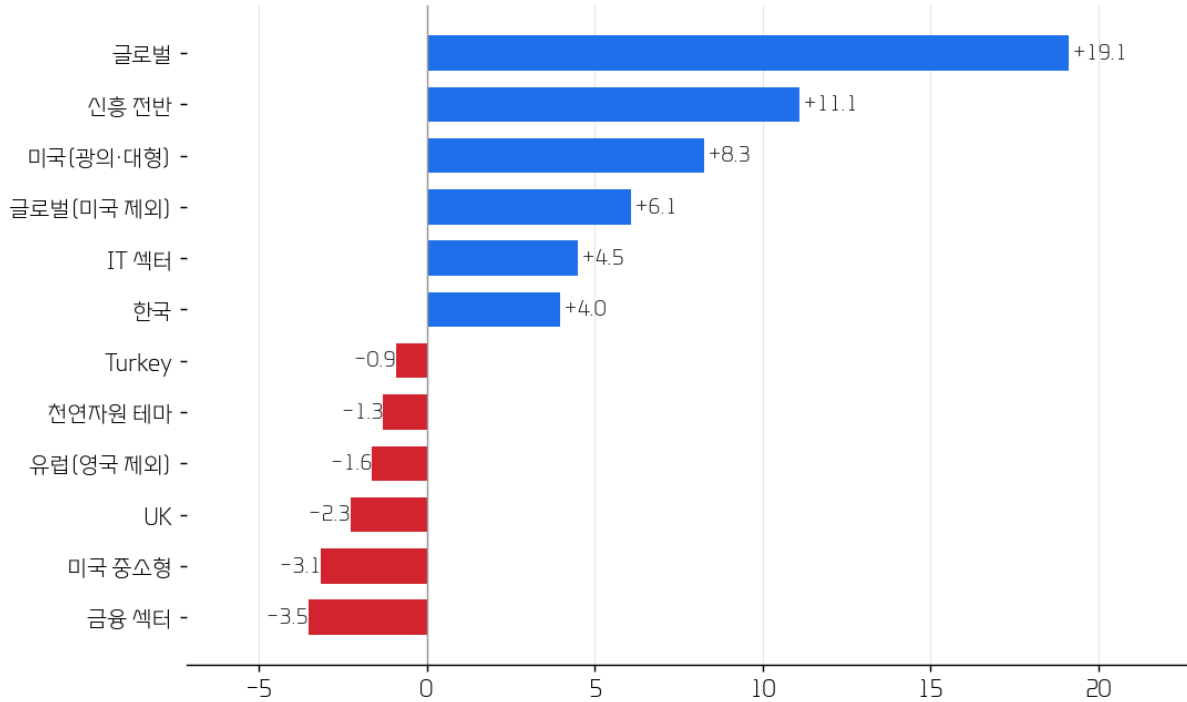
원자재 — 4 주누적 순유입 (USD bn)



부록 — 자산군별 세부 차트 (4 주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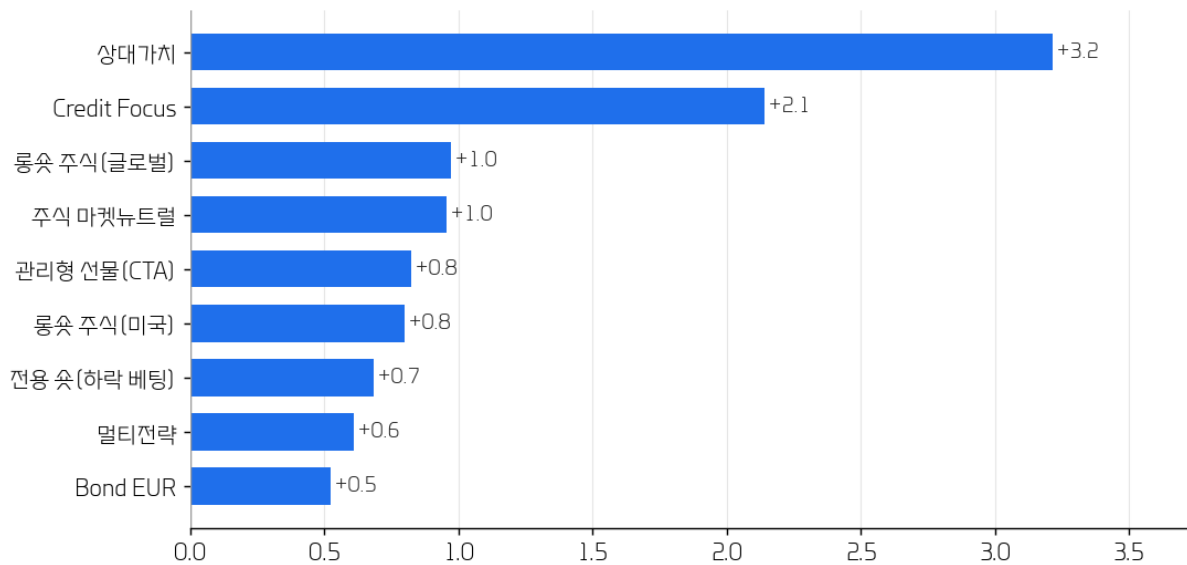
본문 「자산군별 상세」 표를 자산군마다 막대로. 절대금액(bn) 기준이라 규모 큰 항목(미국 등)이 길게 나타난다 — 자산대비 강도는 상세표를 함께 보라.

주식 —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USD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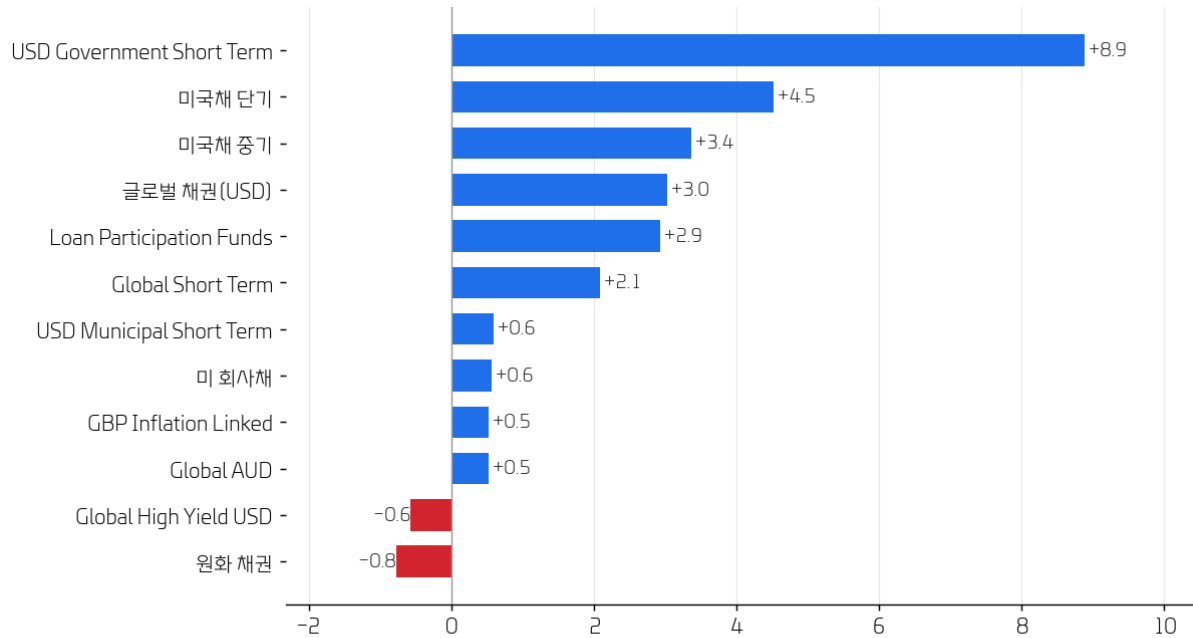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대체투자 —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USD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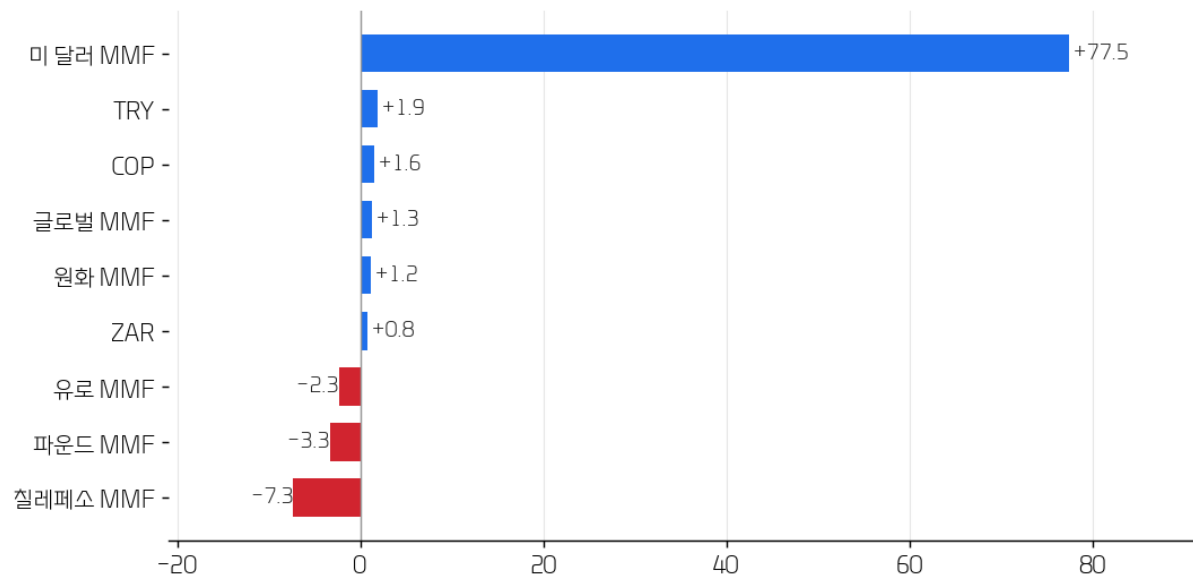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채권 —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USD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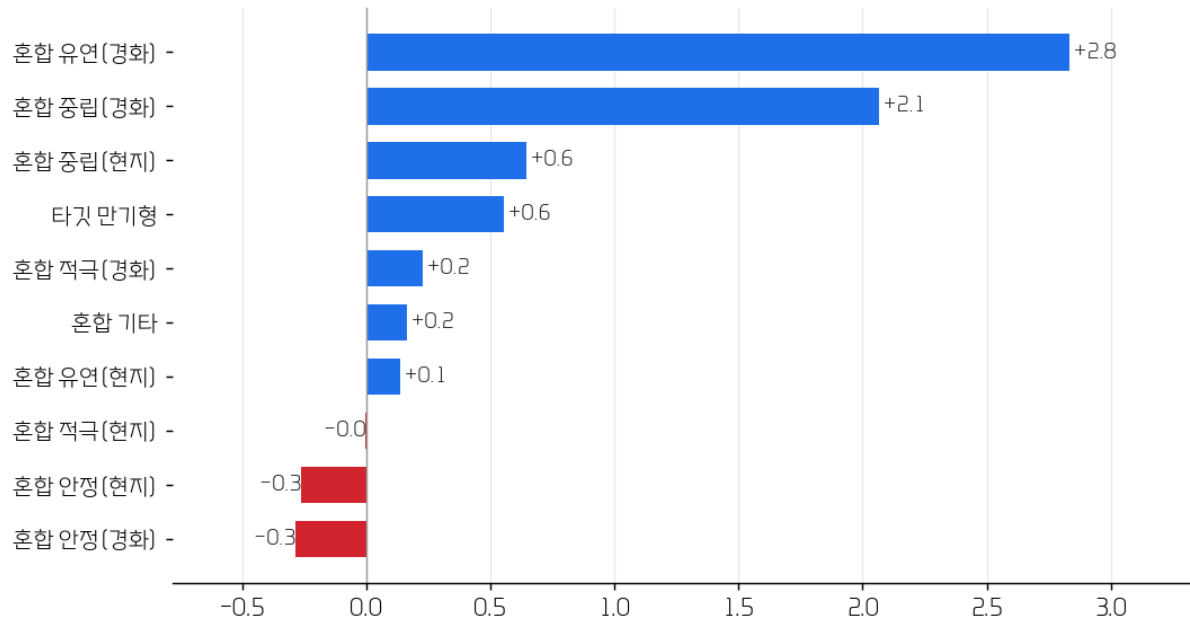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머니마켓 —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USD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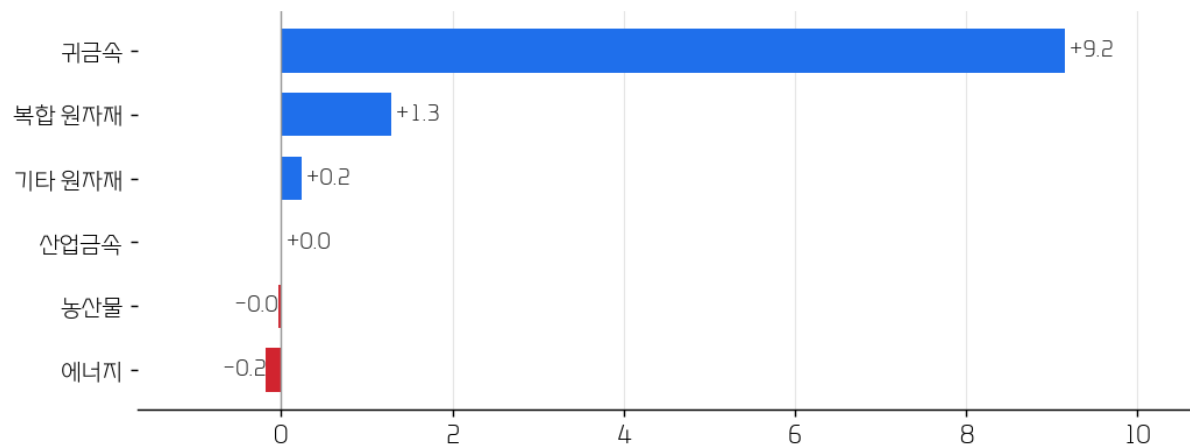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혼합자산 — 중분류별 4 주 누적 순유입 (USD 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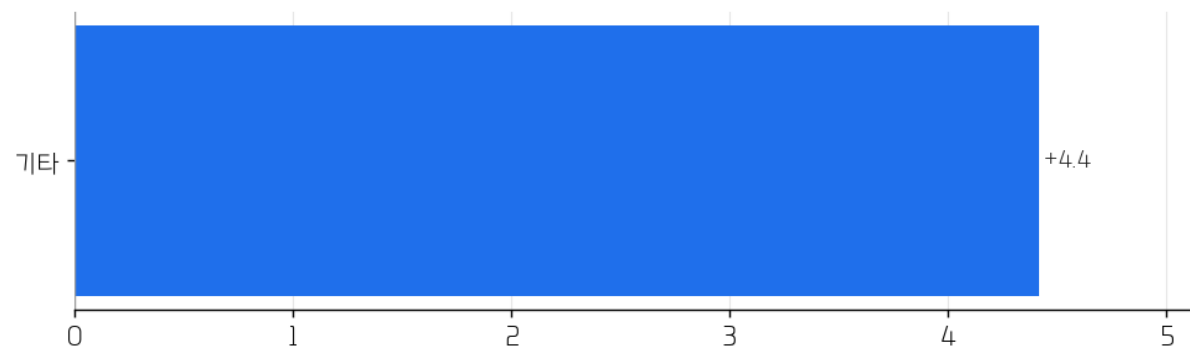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원자재 — 중분류별 4 주 누적 순유입 (USD bn)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기타 — 중분류별 4 주 누적 순유입 (USD bn)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금액(Estimated Net Flows, USD)·유입/유출 펀드 수. 매월 첫 주에 숫자가 튀는 특성(월간 보고 펀드)이 있어 4주 누적·과거 대비 위치로 해석. 제공 수치 기반 분석이며 투자권유 아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